

로버트 바노이, 주요 선지자, 22강

다니엘, 2강, 다니엘 8

다니엘 8:1-2 벨사살 통치에 대한 다니엘의 엘람 환상

다니엘 8장은 해석하기 가장 쉬운 장 중 하나이므로 시작하기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나 다니엘에게 이상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내가 환상을 통해 보니 그 일이 내가 엘람 지방 수산 왕궁에 있을 때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올라이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두 구절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엘람에 있었습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보니 엘람 지방 수산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환상 속에서만 있었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가 이 장소에 있는 것은 환상적 맥락에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산은 엘람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니엘 시대에는 엘람과 수산이 벨사살의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곳은 아니었지만 후에 수산은 메대-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세까지 사람이 살았던 도시였다. 오늘날에는 수사(Susa)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통치의 전성기는 다니엘 시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환상은 바빌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 환상적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니엘 8:3-14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그런 다음 다니엘 8:3-14에서 그의 환상을 읽어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강 가에 숫양 한 마리가 섰는데 뿔 둘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더라.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쫓겨가니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더라.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나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여 위대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보라,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온 지면을 덮고 오더니 땅에 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염소의 눈 사이에는 눈에 띄는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본 바 강 가에 서 있는 두 뿔 가진 숫양에게로 나아 와 그의 맹렬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들더라. 그리고 나는 그가 숫양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향하여 노하여 그 숫양을 쳐 그 두 뿔을 꺾었습니다. 그 숫양에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어서 그가 그를 땅에 내던져 짓밟으니 그 숫양을 그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숫염소가 심히 커지더니 강성하여 가더니 큰 뿔이 꺾이니 이는 눈에 띄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고 그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서 바람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남쪽과 동쪽과 즐거운 땅을 향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군의 우두머리라고 자부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에게 폐하며 성소의 처소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범법으로 인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여 그에게 군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었고 번영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말하는 성도에게 이르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이상에 나타난 성소와 군대가 다 내어주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리요 하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일까지 그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본 비전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3-14절은 그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이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처음에는 두 개의 뿔을 가진 숫양이고, 그 다음에는 눈 사이에 눈에 띄는 한 개의 뿔이 있는 숫염소가 그 숫양을 때려 두 뿔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8절에 “그 후에 숫염소가 커지며 큰 뿔이 꺾이니라 큰 뿔 네 마리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아갔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목할 만한 뿔이 일어났는데, 9절에서는 그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서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분명히 동물과 뿔은 특정 사건을 묘사하는 일련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이 장에는 이 장의 일부 측면과 특징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장의 후반부에서 해석이 제공되므로 대부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8장 1-14절에 숫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을 때 20-27절에 이르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 8:15-19 환상의 해석 소개 이제 그 해석을 다루기 전에 잠시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20-27절을 보기 전에 살펴보고 싶은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15-19절에서 그 해석을 소개합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할 가브리엘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에 가까이 오시매 내가 무서워서 엎드리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깨달아라. 마지막 때에 이상이 보이리라.” 그래서 17장 후반부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그분이 나와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더니 그가 나를 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나에게 ‘보라, 내가 너에게 알려 주겠다’ 고 말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진노의 마지막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정한 때에 끝이 이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17절 끝 부분에 “때가 있느니라.” 결국 비전은 있을 것이다.” 19절의 끝은 “진노의 마지막 끝이라 정한 때에 끝이 있으리라” 입니다. 당신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환상은 시대 끝에 관련된 것인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진노의 끝, 정한 때에 끝이 있으리라” 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제 해석을 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EJ Young이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끝이라고 제안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노하신 후에라 하신 말씀은 새 언약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끝, 새 언약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20-27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8:20-27 환상의 해석, 알렉산더의 메대-바사 정복 20절에서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니라” 라고 읽습니다 .

그래서 3절과 4절로 돌아가서 3절과 4절을 좀 더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보다 높았고 더 높은 것이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숫양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절에서 그 숫양에게 두 뿔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높았으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높았다고 말하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더 높은 것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이전에도 미디어가 중요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와 페르시아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미디어인은 기원전 631년경에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페르시아인은 미디어 제국의 미미한 부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들은 미디어 제국을 지배하기 위해 일어났고, 그 일은 주로 미디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둔 키루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미디어 사람들이 키루스 왕국에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그림이 매우 잘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양에는 뿔이 두 개 있습니다. 두 뿔은 높았다. 하나는 다른 것보다 높았고, 더 높은 것이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메대-페르시아 왕국의 페르시아 요소입니다.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선이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를 거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이집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해석 20절입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그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니라.”

그리고 21절로 갑니다: “그리고 거친 염소는 그리스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리고 21절을 읽어 보십시오. 계속하기 전에 4절에서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밀쳐져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기서 보는 바사 제국의 서쪽과 북서쪽, 북쪽과 남쪽의 모습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서쪽에서 온 숫염소가 21절에서 그리스 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숫염소가 서쪽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으나 땅에 닿지 아니하더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눈 사이에는 눈에 띄는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뿔 가진 숫양에게로 나아가서 그의 맹렬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들더라.”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에서 밀고 들어와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숫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을 덮고 땅에 닿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정복의 신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매우 빨랐다.

그리고 6-7절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한 방식을 묘사합니다. 그가 숫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숫양에는 그 앞에 설 능력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를 땅에 내던져 짓밟으니, 그 숫염소가 심히 커졌다.” 이제 알렉산더의 정복을 보면 지도의 검은 선이 알렉산더 왕국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이는 신속한 정복이었지만 여러 가지 주요 전투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당신은 소아시아 북서부의 그라니쿠스 강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것은 334년 페르시아 군대에 대한 소아시아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1년 후, 기원전 333년에 이시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 북쪽 모퉁이에서 지중해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황소자리 산맥을 넘어 이시스에서 주요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했고, 이를 통해 그는 해안으로 내려와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거쳐 이집트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투는 333년의 이시스 전투입니다. 331년 동쪽으로 가는 아르벨라 전투에서 그는 마지막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제국을 승리한 후 아르벨라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인더스 강. 보시다시피 그것은 334년부터 331년까지 3년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숫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강성하더니 큰 뿔이 꺾이니 이는 큰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나아감이라” 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파멸되고 네 사람이 일어섰으나 네 나라가 열국 중에서 일어나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알렉산더가 전성기였을 때 3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니라(8절). 그래서 당신은 거대한 왕국과 강력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죽는데, 그의 왕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는 두세 살 된 사생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위를 물려받을 적합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기 몇 달 전에 페르시아 왕의 딸과 결혼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아이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혼란과 권력 투쟁이 있었지만 몇 년 안에 알렉산더의 제국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개로 나누어졌으나 그 부분은 안정적이지 않았고 여러 장군이 제국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4개 부분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왕국의 분할 이 왕국은 301년 지도에서 이와 같이 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트라키아, 소아시아 아래에 있으며 처음에는

리시마코스과 안티고누스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리시마쿠스, 안티고누스

휘하의 소아시아, 그리고 셀레우코스 휘하의 동쪽 시리아, 프톨레마이오스 휘하의 남쪽 이집트. 안티고노스의 통치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리시마코스, 카산더가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한 안티고누스입니다. 셀레우코스에 의해 타도된 사람은 안티고나스였습니다. 따라서 Cassander, Lysimachus, Ptolemy 및 Seleucus의 네 부분이 살아남습니다. 22절에서 “네 나라가 그 나라 중에서 일어나되 그의 권세에 있지 못하리라” 고 읽습니다. 사나운

얼굴 의 왕은 누구입니까? 9절에 보면, “그 중의 한 나라 곧 이 네 나라 중의 하나에게서 작은 뿔이 나서 심히 커지더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23절로 갑니다. “열국 곧 이 네 나라의 말일에 범죄자들이 많아질 때에 한 왕이 일어나니 얼굴이 사나우며 어두운 판결을 깨닫는 왕이 서리라” 그러면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그 자신의 권세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는 놀랍게 멸망시키고, 번영하고, 계속될 것이며, 강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권능으로 거짓을 행할 것이며 그의 손이 자기와 그의 마음을 크게 할 것입니다. 그는 평화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다. 그도 일어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끝없이 부서지리라.”

그러므로 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무서운 얼굴을 가진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세상 끝에 올 적그리스도인가? 1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상이 보이리라” 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 말세의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9절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9절은 “그 중의 한 사람에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알렉산더 왕국의 네 부분인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는 네 가지 주목할만한 자들을 다시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왕국의 네 부분 중 하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알렉산더 제국과 그 분열의 맥락에 있고, 통치자는 그 분열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8장에는 주님께서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사람들 이후에 헬라 제국이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백성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 제국은 직면하게 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사나운 얼굴의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네 세력 중 하나인 셀레우코스 제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을 정복했거나, 그 투쟁이 오가는 동안 거의 정복했습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높임을 받아 만군의 왕에게까지

미치니라” 그의 이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를 보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 신 제우스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은 숭배받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분은 여기에 설명된 특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습격하여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막 무찌르려고 했을 때 로마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집트인에 대한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통제하려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군대를 보냈고, 이 로마 장군은 알렉산드리아 바로 밖에서 안티오코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안티오코스가 얼마 전에 로마에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장군 포펠리우스 라에나스는 안티오코스에게 빼앗긴 지역을 돌려주고 이집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라크에서 있었던 사막 폭풍 전쟁에서 모래에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의 유래는 로마 장군이 안티오코스 주변의 모래에 원,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티오코스는 로마인의 요구를 고려할

시간을 원한다고 말했고, 이 로마 장군은 자신 주위의 모래에 이 선을 긋고 ”보세요, 그 선을 넘기 전에 말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굴욕감을 느꼈고, 로마인들과 싸울 병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는 퇴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성벽을 헐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며 유대인의 신앙을 금지했습니다. 안식일 준수와 할례는 사형 선고로 금지되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불태워졌고, 유다의 모든 도시에는 그리스 신들의 형상이 세워졌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성전 자체에는 유대 민족을 적대하기 위해 돼지를 바치는 일종의 제단이 세워졌고, 성전 전체에는 돼지 제물로 바친 기름이 뿌려졌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168년경에 마카베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인들은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마케도니아를 막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으로 마케도니아까지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꽤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안티오코스가 겁을 먹을 만큼 강력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9-14절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소 모호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다니엘 8장을 시작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찬들러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